

# 오 헨리 단편 소설

O. Henry's Short Stories

## 1장. 동방 박사의 선물

p.10~11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추운 겨울날 그녀의 아파트에 앉아 돈을 세고 있었다. 델라는 그녀의 남편 짐을 다른 무엇보다도 많이 사랑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이다. 그는 그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마지막 1센트 동전이 그녀의 무릎으로 떨어졌다. “오, 안돼!” 델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한테 겨우 1달러 87센트밖에 없나니. 이걸로 무엇을 살 수 있지?” 그녀는 달아 해진 소파에 기대어 울었다. “그동안 가장 싼 음식만 사고 모든 돈을 있는대로 모아왔는데, 그런데도, 이게 내가 가진 전부라니.”

p.12~13

그녀는 오래된, 추운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물건들이 망가져 있었다. 우편함이 부서져 있었다. 초인종도 망가졌다. 그들에게는 그것들을 고칠 돈이 없었다. 그들은 아파트 집세로 한 주에 8달러를 냈다. 이게 많은 것처럼 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짐은 일주일마다 겨우 20달러를 벌었다. 집세와 이것저것 쓰고 나면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델라는 어스름한 겨울날의 창문 밖을 내다보



았다. 그녀는 흐린 뒤뜰에 있는 어스름한 빛의 울타리를 회색 고양이와 따라 걷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짐에게 특별한 뭔가를 사주고 싶었다. 그는 아주 멋진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 아무거나 오래된 선물로는 절대 안 될 것이었다.

p.14~15

델라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흥분해서 빛났다. 그녀에게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그녀는 어떤 여자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그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그녀는 풍성한 갈색 머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릎 아래까지 늘어졌다! 그것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 속에서 빛났다. 링크털도 그녀의 머리보다 더 부드럽거나 반짝거릴 수 없을 것이었다.

“머리카락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지, 특히 내 것 같은 머리를.” 그녀는 거울을 보면서 말했다. 그녀는 마음이 바뀌기 전에, 머리를 핀으로 올려 고정하고, 오래된 갈색 코트를 급히 걸치고, 초라한 갈색 모자를 머리에 썼다. 고개를 떨군 채, 그녀는 낡은 카펫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p.16~17

그녀는 미용실 간판이 보일 때까지 걸었다. 간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마담 소프로니: 온갖 종류의 머리카락 상품.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



요?” 델라는 가게 안에 있는 나이 든 여자에게 물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여자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모자를 벗어서 나한테 머리를 보여줘 봐요.” 델라는 모자를 벗었다. “흠.” 나이 든 여자는 미소를 짓고 그녀의 손으로 델라의 길고, 풍성하고, 윤기 나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굵은 갈색 머리카락을 한 움큼 들어 올렸다. “20달러.” 그녀가 말한 것은 그게 다였다. 20달러라니! 그것은 짐의 일주일 치 급료였다! “그렇게 하세요.” 델라가 말했다. “빨리 자르고 돈을 주세요.”



#### p.18~19



델라는 그녀의 무거운 집에서 벗어나자마자, 동네 가게들까지 거리를 따라 달려갔다. 그녀는 창문 안을 응시했다. 그녀는 진열대를 쳐다보았다. 두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가 그것을 찾았다. 완벽한 선물 말이다. 그것은 우아한 백금 시곗줄이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가게를 통틀어 이 종류로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것은 짐의 금시계에 완벽해 보일 것이다. 그는 그 시계를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그것은 짐의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한테 전해져 내려왔다. 짐은 그것을 오래되고 낡은 가죽 끈에 매서 가지고 다녔다. 그 금시계는 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 p.20~21

맞다, 델라는 자기가 그 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것에 21달러를 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잔돈 87센트를 가지고 집으로 달려왔다. 아파트에 돌아오자마자, 델라는 선물을 한쪽에 치워두고 머리

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헤어 아이론으로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질하듯 만지면서 컬들이 적당히 나오게 만들었다. “짐이 내 새 미리 모양을 보고 나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는 커피 주전자를 올려놓고, 스토브를 데웠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이브 저녁으로 폭 잡을 먹을 예정이었다. 델라는 아파트 밖 계단에서 나는 짐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짧은 기도를 했다. “하느님 제발, 짐이 여전히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짐은 지치고 추워 보이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낡은 코트를 벗었다. 그는 차가운 손에 입김을 불면서 손을 마주 대고 비볐다. 델라가 그에게 미소를 시었다. “어서 와요!”



#### p.22~23

짐은 델라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응시했다. 델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매만졌다. “걱정하지 마요, 짐. 머리는 다시 자랄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당신에게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수 있었어요.” 짐의 입이 놀라 벌어졌다. “당신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네.” 델라는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가져갔다. 짐은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이젠 없어져 버렸다고?” “네.” 델라는 그의 손가락에 입맞춤했다. “내가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난 당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 라도 할 거예요.”

짐은 그녀를 껴안았다. “난 그냥 당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머리가 있든 없든 난 당신을 사랑해.”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어.” 그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포장물 하나 꺼냈다.

p.24~25

델라는 선물을 뜯어 열었다. 그것은 그녀의 머리를 떠받칠 수 있는 빗 세트였다. 그것들은 보석이 박혀 있어서 번쩍었다. 그 빗들은 백화점 진열창에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것들은 너무 비쌌다.



델라는 그녀의 머리를 다시 만지고 미소를 지었다. “머리가 다시 길게 자랄 때까지 이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머리는 아주 빨리 자라니까요!” 그녀는 짐에게 포장된 것을 하나 건넸다. “여기 당신을 위한 제 선물이에요!” 델라는 짐이 선물을 열어볼 때 신이 나시 지켜봤다. 그는 백금 줄을 들어 올렸다. “이것을 찾기 위해 모든 곳을 다 둘러봤어요!” 델라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 시계하고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어서요, 당신 시계를 꺼내봐요. 시계에 이 줄을 단 것을 보고 싶어요.”



p.26~27

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내 선물도 간직해 두는 게 어떨까? 난 당신에게 그 빗을 사주려고 시계를 팔았거든.” 눈물이 델라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짐은 키스로 그 눈물을 닦아 주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갔던 3인의 현자였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 두 젊은이는 훨씬 더 현명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선물을 나눌 수 있게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포기했다.



2장. 마녀의 빵

p.30~31



미스 마사 미첼은 그녀의 빵집 창문 진열대에 빵을 진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그마한 상점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빵집까지 올라오는 세 개의 계단을 정말 좋아했다. 그녀는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딸랑딸랑 울리는 종소리를 정말 좋아했다. 그녀는 은행 계좌에 2천 달러를 저축해 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의치 두 개를 보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40세였고, 그녀 생각에는 자신이 아주 성공했다.

p.32~33

중년의 한 남자 손님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독일 억양으로 주문했다. 그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끝이 뾰족한 갈색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오래된 옷과 대조적이었다. 옷은 수선되고 구겨져 있었다. 미스 마사의 가게는 부드럽고 맛있는 갓 구운 빵을 한 덩어리에 5센트씩 팔았다. 오래된 빵은 두 덩어리에 5센트씩 팔렸다. 이 남자는 올 때마다 매번 오래된 빵을 샀다. 미스 마사는 생각했다. “불쌍한 사람. 그는 신선한 빵을 살 여유가 없는 게 틀림 없어.” 그는 미스 마사에게 빵값으로 동전을 건넸다. 그가 이렇게 할 때, 미스 마사는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다. 그의 손가락들이 빨간색과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마도 그는 화가인가 봐.” 그녀는 추측했다.



p.34~35

그녀는 공상에 잠겼다. “그는 아마도 화가의 다락방에 살고 있을 거야. 그는 아마도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그림을 그리겠지. 그가 너무 가난해서 나의 맛





있는 빵과 물을 살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퍼. 하지만 그것이 예술가의 인생길이지 뭐.” 보시다시피, 미스 마사에게는 동정심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독일인에게 더 좋은 무언가를

먹일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빵집 계산대 뒤에 베니스 그림 하나를 받쳐 두었다. 그 그림에는 아름다운 하얀색 대리석 궁전이 있었다. 베니스에서 사용되는 낭만적인 배인 곤돌라들이 그 궁전 앞 물 위에 떠 있었다. 미스 마사는 그 독일인이 이 그림을 알아차리기를 바랐다.



#### p.36~37

문에 있는 종이 딸랑거렸다. 그 소리도 즐거웠지만, 독일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그는 그림을 쳐다보았다. “저는 미술을 정말 사랑해요.” 미스 마사가 말했다. 그녀는 남자의 빵을 포장했다. “이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독일 남자가 말했다. “안 좋다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전망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 그림은 진짜같이 보이지 않네요.” 그는 빵값을 내고 떠났다.



“그는 천재임이 분명해.” 미스 마사는 생각했다. “게다가 그는 또한 친절해.” 그녀는 다시 공상했다. 만일 그녀가 그 독일인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 만일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줄 수 있고, 그를 지원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 어쨌든 그녀는 은행에 2천 달러가 있었다. 그 돈이면 한 동안 가난한 예술가를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 p.38~39

다음 날, 그는 다시 오래된 빵을 샀다. 미스 마사는 그가 말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케이



크나 파이, 또는 달콤한 물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그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

날 밤, 미스 마사는 특별한 얼굴 크림을 만들었다. 그녀는 켄스 씨를 으깨서 그것들을 봉사와 섞었다. 그것은 그녀의 피부를 밝게 만들어줄지도 몰랐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점무늬가 있는 파란색 실크 드레스를 옷장에서 꺼냈다. 확실히 그는 그녀가 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그 독일인은 다음 날 왔다. 미스 마사가 막 그의 오래된 빵을 가져올 때, 소방차가 빨리 지나갔다. 소방차 경적이 요란하게 울렸다. 소방차의 비상등이 깜빡였다. 남자는 그것을 보기 위해 앞쪽 창가로 달려갔다.



#### p.40~41



“아하! 이게 기회네.” 미스 마사는 생각했다. 그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녀는 칼을 움켜잡았다. 그녀는 빵 덩어리들을 반으로 잘랐다. 그녀는 빵 위에 두꺼운 층으로

버터를 펴 발랐다. 다음에, 그녀는 빵 덩어리들을 다시 합쳐서 안에 있는 버터를 가렸다. 그 독일인에게 산대에 되돌아 왔을 때, 미스 마사는 이미 그 빵 덩어리들을 포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깜짝 놀랄까? 그는 좋아할까? 그가 빵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다시 공상했다. 그녀는 그가 빵을 그의 다락방으로 가져가는 것을 상상했다. 그녀는 그가 빵을 한 입 베어 무는 것을 상상했다. 그녀는 그가 달콤한 크림

같은 버터를 맛볼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을 보았다. 오, 그는 확실히 행복할 것이



p.42~43



그날 나중에 남자 두 명이 세 개의 계단을 쿵쿵거리며 올라왔다. 문에 있는 종이 화가 난 듯 울렸다. 독일 남자가 빵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한 젊은 남자가 그를 따라왔다. 그 독일인의 얼굴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 벌

겉게 삼기되었다. “어리석은 바보 같으니라고!” 그는 미스 마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녀는 계산대에서 뒷걸음질 쳤다. 그는 계산대 위를 손으로 탕탕 쳤다. “이 늙은 마녀같으니라고! 당신이 나를 망쳤어! 당신이 모든 것을 못 쓰게 만들었다고!” 젊은 남자가 그 독일인을 밖으로 끌어내 그에게 얘기를 했다.

p.44~45

젊은 남자는 혼자 다시 들어왔다. “무슨 일이죠? 제가 모든 걸 망쳤다니, 저 남자가 뭐라는 거예요?” 미스 마사의 입술이 떨렸다. “저 남자의 이름은 블룸버거입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그는 건축가들을 위해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는 제도사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가 화가 난 거죠?” 그 남자는 계산대에 기댔다. “그러니까, 그는 대회에 참가했어요, 새 시청 그림을 그리는 대회죠.” 미스 마사는 그런 대회에 참가하다니 블룸버거가 재능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p.46~47



그 남자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블룸버거는 3달 동안 그의 그림에 공들였어요.” “긴 시간이에요.” 미스 마사가 말했다. “맞아요, 이게 그가 작업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그는 연필로 그림을 그려요. 한 부분을 마치고 나면, 그는 잉크를 써서 그것을 따라 그려

요.” “아주 일이 많은 것처럼 들리네요.” 미스 마사가 말했다. “맞아요.” 젊은 남자가 동의했다. “잉크로 한 부분을 따라 그리고 나면, 그는 연필 자국들을 모두 지워요. 연필 자국들을 지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지우개로요?” 미스 마사가 물었다. “아니요.” 젊은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어떤 지우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p.48~49

그 남자는 오래된 빵 한 덩어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이게 어떤 고무 지우개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오래된 빵은 연필 자국들을 지워요. 그는 그 빵을 종이에 문지르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부스러기들을 붓으로 털어내요.” 미스 마사의 눈이 커졌다. “하



지만 그가 오늘 빵을 사용했을 때, 당신이 그 빵에 발라 둔 버터가 그림 곳곳을 더럽혔죠. 잉크가 마구 문질러 졌어요. 그림이 망가졌죠.”

미스 마사는 그때 슬픈 탄식을 내뿜었다. 그녀는 그녀의 침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예쁜 실크 드레스를 벗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특별한 얼굴 크림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일하러 돌아갔다.



3장. 붉은 추장의 몸값

p.52~53

어떤 사람들은 나와 내 친구 빌이 나쁜 사내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 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을 알아보자. 언젠가 나와 빌은 현금 2



천 달러가 급하게 필요했다. 우리는 씨밋이라는 소도시로 갔다. 이름 때문에 속지 마시라, 이 소도시엔 무척 번철처럼 평평했다. 그곳은 소규모 경찰대가 있는 작은 도시였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이 많았고, 그들은 그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했다. 그곳은 납치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 p.54~55

에베네저 도식은 씨밋에 살았다. 그는 엄격한 남자였고, 항상 규칙에 따랐다. 그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갔다. 그는 지역 은행에서 주택 자금 융자를 승인해주었다. 도식 씨에게는 열 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었다. 우리는 그 소년이 그의 아버지에게 분명히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바로 그 소년을 우리가 납치 할 아이로 정했다. 씨밋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산에서 우리는 동굴을 하나 발견했다. 우리는 물품들을 사서 동굴에 그것들을 보관했다. 그 소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말과 마차를 빌렸다.



해가 저문 바로 직후, 우리는 도식 가족의 집으로 몰고 갔다. 아이는 밖에서 볼썽한 작은 새끼 고양이한테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다. 빌이 소년에게 미소를 지었다. “어이, 꼬마야! 사탕 좀 먹을래?”

#### p.56~57

아이엔 1분 동안 그를 응시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벽돌 조각을 빌에게 던졌다. 벽돌 조각이 그의 눈에 정통으로 맞았다. “아야! 아프잖아!” 빌이 눈을 비볐다. 그는 내 쪽으로 기대면서 말했다. “그의 아버지에게 추가로 5백 달러를 더 내라고 할 거야.” 우리는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그 소년을 잡았다. 그는 저항했다. 그는 고양이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그를 마차에 태워 동굴로 데려왔다.

나는 말과 마차를 돌려주기 위해 마을로 되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동굴로 걸어 돌아왔다. 내가 되돌아 왔을 때, 나는 내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소년이 미리미리 칠면조 깃털을 두 개 꼽고 있었다. 그는 불 옆에 서서 소리를 질렀다. “나는 붉은 추장이야!” 그는 그의 손으로 나를 저지했다. “내가 감히 너를 들어오게 하겠대!” 빌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인디언 놀이를 하고 있던 중이야. 붉은 추장이 그러는데, 그가 내 머리 가죽을 벗길 거래.”



#### p.58~59

나는 빌의 얼굴과 다리에 있는 멍들을 보았다. “저 아이는 발로 찰 수 있어.” 빌이 나에게 말했다. 소년은 발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면서 막대기로 나를 쿡쿡 찔렀다. “너는 뱀눈 스파이아! 내가 너를 화형에 처할 것이다!” “너는 재미있어 보이는구나.” 내가 그 아이에게 말했다. 그 아이는 빌이 우리한테 저녁을 차려줄 때까지 와하는 함성을 지르며 춤을 췄다. 저녁 식사 내내 소년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빌이 지쳤다. “어이, 애야, 너 집에 가고 싶니?” 그가 물었다. “아니. 집은 재미없어. 난 학교 가기 싫어.” “늦었다.” 내가 소년에게 말했다. “우리는 자야 해.” 밤 11시였다. 하지만 소년은 인디언 놀이를 하면서 세 시간 동안 더 안 자고 있었다.



#### p.60~61



나는 악몽을 꾸었다. 나는 해적에 의해 나무에 묶여 있는 꿈을 꿔다. 나는 빌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잤다. 붉은 추장이 칼을 손에 쥔 채 빌의 가슴 위에 앉아 있었다. “내가 너의 머리 가죽을 벗길 테



다!” 그 아이는 빌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빌은 그날 밤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로였다. 나는 붉은 추장이 나를 화형에 처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빌이 물었다. “너는 누가 이런 버릇없는 녀석을 데려가려고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그들은 그럴 거야. 부모들은 저런 아이들도 사랑하잖아.”

#### p.62~63



아침 햇살이 비추자마자 나는 산꼭대기로 갔다. 나는 그 소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워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아마도 그들은 소년을 찾기 위해 수색대를 구성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본 것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라. 아무도 그 소년을 찾고 있지 않았다. 한 농부는 자신의 밭을 갈고 있었다. 아무도 실종자 게시물들을 내걸고 있지 않았다. 평온이 씨앗을 지배하고 있었다.

#### p.64~65



나는 동굴로 돌아왔다. 소년은 손에 큰 돌멩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달걀 크기였다. 그는 빌을 구석에 가둬놓고 있었다. “샘!” 빌이 나에게 소리쳤다. “이 아이가 뜨거운 감자를 불에서 꺼내서 그것을 내 등에 세게 내던졌어! 그게 너무 아파서 내가 이 아이 귀싸대기를 때렸어.” 빌은 그의 등을 문질렀다. “혹시 총 있어?” 붉은 추장이 와야 하고 함성을 질렀다. 돌멩이가 날아가서 빌의 귀 뒤를 쳤다.

빌은 불 위의 뜨거운 물이 있는 팬 위로 넘어졌다. 나는 쓴살갈이 가서 그를 끌어냈다. 나는 그



의 머리와 등 위에 차가운 물을 부었다. “암전히 있어!” 나는 그 아이에게 소리 질렀다. “그렇지 않으면 널 집에 데려다줄 거야!” “난 그냥 재미로 그런 거였어.” 소년이 말했다. “그를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너는 빌에게 사과해야 해.” 소년은 바위에 앉아서 생각했다.

#### p.66~67

나는 빌이 앉아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빌, 나 근처 마을인 포플러 코브에 가야 해.” 빌은 고개를 저었다. “안돼, 샘, 안돼! 나를 여기에 붉은 추장하고 오랫동안 남겨 두지 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단언했다. “난 이 몸값 요구 쪽지를 꼭 보내야 돼.” “내 생각에는 네가 몸값을 5백 달러 낮춰야 해. 저 소년은 살팽이야!” 그 쪽지에는 도식에게 오후 8시 30분에 씨앗 밖 울타리 위에 있는 상자 안에 그의 답변을 남겨두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는 그 쪽지에 이렇게 서명했다. “궁지에 몰린 두 남자.”

그즈음, 소년은 또 다른 놀이를 하고 싶다고 결심했다. “너는 말이다!” 그가 빌한테 말했다. 소년은 빌의 등에 뛰어올랐다. 빌의 눈은 뗏에 걸린 토끼 눈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나는 몸값으로 그냥 천 달러만 바랐다. 나는 몸값 쪽지를 보내기 위해 자리를 떴다.



#### p.68~69



내가 동굴로 돌아왔을 때, 빌과 소년은 사라지고 없었다. “빌!” 내가 불렀다. 빌은 숨어 있다가 나왔다. “샘, 나 고문당했어.”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 아이가 나를 말처럼 타고 90마일을 달렸어. 그러고 나서 나한테 모래를 먹으라고 했어! 그 아이는 절대 말을 멈추지 않았어! 나를 발로 차고 물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무 피곤해. 내가 소년을 집으로 보냈어.”

나는 빌의 어깨 너머를 보았다. 그 소년이 빌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다. “있잖아, 빌?” 내가 물었다. “너 심장 약해?” “아니.” 빌이 말했다. “잘됐네.” 내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뒤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기가 빠르다. 하지만 빌은 나보다 훨씬 더 빨리 떠났다. 사실, 그는 이미 내가 그를 따라잡기 전에 소도시 밖으로 1마일하고도 반은 더 가 있었다.

#### p.70~71

빌이 돌아섰다. 그가 소년을 봤을 때,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의 피부는 하얀색 분필처럼 사색이 됐다. 나는 빌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자정까지 이 일을 다 끝낼 거야. 약속할게.” 나는 몸값 쪽지에 대한 대답을 가지러 갔고, 그것을 동굴로 가지고 와서 읽었다. “친애하는 두 명의 궁지에 몰린 남자분들께, 당신들의 몸값은 너무 높습니다. 당신들이 그 남자애를 집으로 데려오는 게 어떨까요? 당신들이 나에게 250달러를 내면, 내가 그를 다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빌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샘, 이거 좋네! 250달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는 아이를 없앨 이 기회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내가 소년에게 말했다. “어이, 애야. 너의 아빠가 너에게 은색 소총을 사줬다. 그가 그러는데 너는 곰 사냥을 갈 거래. 우리는 너를 집으로 데려가야만 해.”



#### p.72~73

자정에 우리는 도식의 문을 두드렸다. “싫어!” 소년은 울부짖었다. 그는 빌의 다리를 잡고 놓지 않았다. 도식은 오래된 상처 딱지처럼 그 소년을 빌의 다리에서 떼어냈다. 빌이 도식에게 돈을 줬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잡고 있을 수 있나요?” 빌이 물었다.



“나는 예전만큼 힘이 세지 않아서요.” 도식이 그에게 말했다. “나는 아마도 10분 정도 그를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잘됐네요!” 빌이 그에게 말했다. “그때는 내가 이 나라의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지금 나는 달리